



## 자유

1413. 자유로운 영혼들!

바로 이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덕분에 세계적인 대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해방시키고 화해시킵니다.

이 자유의 나라에는 늘 자리가 비어 있지만 이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입국 심사 과정이 너무 엄격해서 언제

탈락할지 모릅니다.

1414.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걱정을 놓아 버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걱정하는 순간 자유는 사라져 버립니다.

1415. 자유롭게 된다는 것, 과연 어떤 것일까요? 글썽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영혼을 묶어 놓는 모든 것; 그것이 크든 작든, 물질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로운 영혼은 날아 오를 때 아무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감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 것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비행(飛行)을 방해하는 그 어떤 저항도 느끼지 않습니다.

1416. 인간 깊은 곳에는 자유에 대한 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꿈은 진리가 영혼 안에 깊이 뿌리 내

릴 때에 비로소 실현됩니다. 진리만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또 없습니다(요한 8, 32 참조).

1417.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날아 오르십시오. 무한하신 하느님과 하나가 될 때까지 날아 오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1418. 강인한 사랑에 그대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자유의 영역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유는 깊은 산 침묵 속에서 성장합니다. 지상적인 것이 조금도 섞여 있지 않은, 하느님의 대양 속으로 잠겨 드는 것이 그의 유일한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1419.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진리는 자유의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그대의 삶이 사랑과 자유를 노래하는 찬가가 되길 바랍니다.

1420. 여러분의 수도원이 허공 위를 거닐고, 여러분은 심연 위를 거닐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누리는 은밀한 자유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언제나 항상 저 높은 곳만 바라보며 산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장관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1421. 이제 자신에 죽는 비행(飛行)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거슬러 좀더 야성적으로 싸워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서 해방되고, 용감하게 내어주며, 살아있는 바위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는 매우 너그러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공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가장 높은 정상, 하느님을 향해 도약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22.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들..., 자유로운 영혼들! 넘치도록 자유를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유롭게 해 주신 영혼들!

우리는 자유를 숨쉬는 영혼들입니다..

1423. 사랑에 빠진 이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에 빠진 이들만이 세상에 필요한 사랑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

1424. 기쁨과 평화를 잃지 마십시오. 그대는 하느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하느님께 속한 마음은 보잘것없는 세상 일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1425.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들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것도 선호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특정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1426. 과연 누가 자유로운 영혼들의 세계로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짓누르고 약화시키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 이들, 드높이 날아 오르는 이들, 영원한 사랑의 무한한 대양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들의 무리에 누가 끼 수 있겠습니까?

1427. 이제 심각하게 자유의 비행(飛行)을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사물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에 빠진 자유로운 의지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높이 날아 오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로 하느님을 찾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봉사하며 언제나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굳센 의지가 필요합니다.

1428. 자유로운 이들의 세계는 특별한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인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수의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그 신비로운 비움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용감한 새

인종이 거기서 탄생합니다. 이들을 보면 전율을 느끼집니다. 그러나 바로 이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1429. 우리 함께 관상 생활을 건설해 갑시다. 이는 “위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십자가의 요한) 한결 같이 자유로운 삶입니다. 지상의 사물들이 그 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형언할 수 없이 신비로운 삶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우리는 사라지고 하느님이 전부가 되는 신적인 자유로움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우리가 해방되어 전부이신 하느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1430. 오늘은 혼인 잔치 날, 모든 것이 너무도 강렬합니다.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와라”(묵시 19,17) 그대는 이 혼인잔치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잔치에는 지켜야 할 원칙과 요구들이 있습니다. 혼인 잔치는 모든 것을 청하고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은 내 하느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

겠다”(목시 3. 12)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는 승리한 사람들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라는 요구가 그대에게 주어졌습니다.

1431. 이 순간,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 귀부인과 자유의 여왕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혼인잔치입니다. 높이, 더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그대를 묶고 있는 사슬을 다 끊어버리십시오. 아무 것도 그대 수중에 남겨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권리, 목숨마저도 내놓으십시오.

1432. 우리 자신을 깨뜨립시다. 우리 자신을 깨뜨려 복되신 그분의 발치에 내려 놓읍시다. 값비싼 순나르드 향유 냄새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도록 우리의 옥합을 깨뜨립시다(요한, 12,3 참조). 우리 자신의 해방을 위해, 자유를 염원하는 수많은 죄인들의 해방을 위해 우리 자신을 깨뜨려 버립시다.



1433. 나의 소중한 꿈마저 포기하는 것, 이야말로 신비롭고 복된 자유입니다. 이는 아무 결점 없이 이미 성인이 된 자신을 보고자 하는 자기 만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1434. 마음의 자유는 더 많은 가난과 온유, 내적 평화와 충만한 기쁨을 요구합니다.

1435. 자유로운 영혼은 뜬 구름 같은 영성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힘차게 날아갑니다.

1436. 그대에게 진실을 말해 주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용감해 지십시오, 정말 용감해야 합니다.

진리가 그대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그대가 왜 자유롭지 못한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1437.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사

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 무엇도 그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아무 것도 그대가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무엇보다 그대 자신에게서 해방 되십시오. 어떻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부드럽게 하면,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1438. 정말 그분을 만났다면, 그대 영혼이 자유롭게 되었는지 깊이, 잘 살펴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영혼을 묶는 끈을 끊어 버리고 날아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1439. 당신 안에 사라지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로 인해 무거워 지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당신께 던져버립니다. 제게 있는 가능성마저 모두 당신께 맡겨 버릴 때, 저는 해방될 것입니다.

1440. 아무 것도 그대 손에 남겨놓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 하는 걱정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영혼을 정화시키고 꿰뚫으시도록 그대 가슴을 활짝 여십시오

수천 번 기운 누더기 같이 되었지만 그대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 빈 손으로 하느님께 매달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행운이 그대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441. 무엇이 그대를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표시가 너무 납니다.

그대가 서원으로 축성되는 올해, 그대가 해방되는 결정적인 해가 되길 바랍니다.

1442. 자유롭게 되는 것..., 하느님!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손에도, 마음에도, 영혼

에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적인 것로부터 온전히 비어 있는 것이고 사물들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작은 우상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1443. 뭔가 불안합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자유는 고요함과 평온함입니다.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삶입니다.

1444. 자유는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거대한 차원을 부여합니다. 사랑 안에서, 자유 안에서 거인이 되십시오

자유는 사랑을 가져오고 사랑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1445.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입니다. (요한 8, 32) 그러나 이 자유는 신성한 종살이입니다. 묶어 놓지만 억압하지 않습니다. 무엇 보다 머지 않아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저 마지막 위대한 신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오, 거룩한 신비여... 어떤 대가를 치러야 그대를 살 수 있을까요!

1446.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수리처럼 자유로워지십시오, 아니 천사들처럼 되십시오. 그대 자신에서 자유로워지고 성덕을 향해 날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에도 묶여있지 마십시오.

자유로운 영혼들이 누리는 자유로움으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열정과 대담함으로 하느님을 향해 날아가는 그대를 보고 싶습니다.

1447.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편협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좀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애덕은 위태롭습니다.

왜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유로워지십시오. 스스로의 베일에 지나치게 싸여 있습니다. 베일을 찢고 날아오르십시오.

1448. 그대 가난의 정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대 삶에 참된 자유가 부족합니다. 자기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대는 자기 잘못을 지나치게 정당화합니다.

1449. 예수님! 저를 묶어 놓는 이 끈을 빨리 끊어 주십시오. 서두르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뾰뾰 묶여서 당신께 달려가지 못하는 저를 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서 끊어 주십시오.

제 이기심의 끈을, 교만의 끈을 끊어 주십시오. 당신 사랑의 가위로 끊어 주십시오.

1450. 주님,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저를 묶어주십시오. 저는 저의 자유가 두렵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소중한고도 막대한 이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저의 자유가 두렵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너무도 약하고 비겁한 저를 믿을 수 없기에 제 영혼이 부르짖

습니다. 제가 도망치지 못하게 저를 묶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할지라도 사랑의 복된 끈으로, 헌신의 사슬로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받은 채찍질과 거룩한 죽음, 당신 사랑의 수난의 복된 신비에 결합시켜주는 희생의 밧줄로 저를 묶어 주십시오.

1451. 자유를 노래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대담한 일인지요! 이는 영혼에 참된 휴식을 가져다 줍니다. 사건과 사물들에 묶여 있을 때,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우리를 묶어 놓는 모든 끈들을 끊어버릴 때 지극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1452. 자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의 자유!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실까요? 그분의 취향을 알아내고, 그분의 취향대로 살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속임수 없는 참되고 올바른 자유입니다.

이 자유의 영역으로부터 사랑할 줄 아는 새 인종이 탄생합니다

1453. 우리 마음을 묶어놓고, 차지하고, 질식시키는 이 유치한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일보다 더 멋진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없애버려도 본질적인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은 모두 방해가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무질서하고 지나치게 갈망하면 그것도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모두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는 아무 걱정하지 않고 모든 것에 무관심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져도, 빼앗아 가도, 이전에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물을 사용하되 거기에 마음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전화번호를 사용하듯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



대방과 통화하는 것이지 전화 번호가 아닙니다. 번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자유입니다.

1454. 타인에게 감탄하는 능력을 잃지 마십시오. 자매들의 성덕에 늘 감탄 하십시오. 자기를 남보다 작게 여기십시오. 그러나 책임지고, 덕행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야 할 때는 주위 사람들은 다 잊고 그대 자신이 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대 영혼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간혹 그대가 납득 할 수 없는 행위를 보게 되더라도 실망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1455. 베들레헴 동굴에 들어가려면 트렁크들은 밖에 놔 두어야 합니다. 신비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게 트렁크는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포로가 되어 홀가분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대 일만 걱정하지 말고 형제들을 걱정하고, 교

회의 일, 하느님의 일에 대해 걱정하십시오.

1456. 그대 영혼이 텅텅 비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우는 작업에 저도 한 몫 할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 의자, 작업상. 다리미, 옷감, 불평 불만의 소리들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 불길에 휩싸여 그대도 타 들어 갑니다. 끝까지 타 버리십시오. 흔적조차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때까지 타 버리십시오.

이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존재하시고 오직 그분만이 그대 안에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느님은 그대의 마지막 숨결 까지도 차지하려 하십니다. 숨결 하나라도 그대를 위해 남겨 놓는다면 그것마저 앗아가실 것입니다. 오 하느님의 복된 질투여!

1457. 지역이나 인종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는

영혼을 불로 만드시는 불이신 하느님만이 계십니다.

이 신비스런 불 안에서 사물의 겉모습은 사라지고, 본질이 아닌 것은 떨어져 나갑니다. 오직 하느님만 남게 됩니다, 그 하느님께서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언할 수 없이 새롭고 심오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1458. 사물들로부터 비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충만해집니다. 오직 비움 안에서 우리의 신비스런 침묵은 신적인 대화의 반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욕구의 소음들로 하느님의 침묵을 깨뜨리지 맙시다.

끝없는 비움... 하느님의 무한한 채우심!